

'A Tempo, 군산! 멈추지 않는 항해'

군산시립합창단 제121회 정기연주회 2월 5일 개최

군산시립합창단이 제121회 정기연주회 '2026 The Barton Series I 지휘자 프로젝트 A Tempo, 군산! 멈추지 않는 항해'를 오는 2월 5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채용을 위한 공연 심사를 겸한 무대로,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된 최종 3인의 지휘자 후보 중 첫 번째 후보가 자신의 음악적 색채와 해석을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지휘를 맡은 조은혜 지휘자는 현재 대전시립합창단 전임지휘자로 활동하며, 목원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뒤 독일로 유학해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와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마쳤다.

이후 제7회 국제합창지휘콩쿠르 2위, 국립합창단 지휘경연대회 1등 등 국내외 주요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합창과 오케스트라 지휘를 겸비한 지휘자로서 생동감 있는 무대 에너지와 섬세한 음악 해석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공연의 첫 무대는 'Grave - 심연의 침묵, 그 깊은 울림'을 주제로, 안톤 브루크너의 무반주



군산시립합창단 제121회 정기연주회 포스터

혼성 4부 합창곡 'Christus Factus Est'로 문을 연

다. 이어 드뷔시의 'Romance'가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반복적인 리듬과 강렬한 에너지가 인상적인 현대 라틴리듬 합창곡 'Ritmo'가 무대를 채운다.

또한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먼저 느끼게 하는 조혜영 작곡의 '봄비림 난 너들', 김소월 시인의 절제된 이별의 정서를 담은 가곡 '만후일' 등 한국 합창곡도 함께 연주되며, 군산시립합창단의 섬세하면서도 풍성한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심종안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 과장은 "이번 연주회는 군산시립합창단의 새해 첫 무대이자 상임지휘자 선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지휘자 심사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각 후보의 음악적 해석과 지휘 역량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석 5,000원(할인 2,500원)이다. 예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좌석권은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1층에서 수령할 수 있다.

기타 공연 관련 문의는 군산시립합창단(063-454-5558)으로 하면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정읍시립국악단, 예술 혼 빛났다

조용수 단장,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단원들 각종 수상 이어져

정읍시립국악단이 최근 각종 문화예술 시상식에서 연이어 상을 거머쥐며 정읍의 위상을 드높였다. 단원들의 뛰어난 기량과 전통 예술 계승에 대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국악단에 따르면 우선 조용수 단장(57)은 지난해 12월,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무용부의 변은정 단원(46)은 지난해 12월 (재)대한무용협회 전주지부가 수여하는 중견무용가상을 받으며 지역 무용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인정받았다. 또한, 박차은 무용부 단원(42)은 올해 1월 '2026 사아곡악상' 무용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정읍 국악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잇따른 수상은 각 단원이 보여준 성실한 예술 활동과 전통 음악의 보존 및 계승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이 평가된 덕분이다. 특히 무용과 기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대외적으로 정읍시립국악단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용수

변은정

박차은

정읍시립국악단은 무용, 기악, 창극 등 다채로운 분야의 전문 예술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그동안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견인해 왔다. 국악단은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에도 정기 공연과 기획 공연, 월간 상설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해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할 계획이다.

조용수 단장은 "단원들의 이번 수상은 개인의 피땀 어린 노력은 물론 정읍시립국악단 전체의 예술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예술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허산옥, 남쪽 창 아래서' 전시 연계 프로그램 개최

전북도립미술관, 대화형 프로그램·행원서 작은 전시 진행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남전(藍田) 허산옥(1924~1993)의 삶과 예술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전북미술사 연구시리즈 '허산옥, 남쪽 창 아래서'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오후 전북도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전시 연계 대화형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허산옥의 조카인 허영순의 회고를 중심으로, 미술사가 최열의 강의와 전시를 담당할 학예연구사와의 대화를 통해 허산옥의 삶과 예술 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가족의 기억 속 허산옥의 모습과 미술사적 해석, 전시 기획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문헌이 함께 소개될 예정으로, 작가 개인의 삶과 예술적 성취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전주 종남문 근처의 카페 행원(전주 원산구 종남문3길 12)에서는 작은 전시 '허산옥, 살구나무 아래서'가 분관 전시와 연계해 진행 중이다. 이는 허산옥이 실제로 머물며 작품 활동과 교류를 이어갔던 장소인 행원에서 열리는 장소 기반 전시로, 현재 행원 소장자가 보유한 허산옥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팔군자 병풍', '매화'를 비롯한 작품들이 전시되며, 관람객은 작품 감상과 더불어 작가의 삶의 흔적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원에서의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 본관에서 열리는 허산옥 관련 기획전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관람객은 행원과 미술관 분관을 모두 방문하여 그림 엮서를 완성하는 스탬



프 투어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일상적 공간과 미술관 전시를 연결하는 관람 동선을 제안하고, 지역 문화공간 간 협력과 상생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고호와 고갱: 세기의 라이벌' 레플리카 전시회

군산예술의전당이 겨울방학을 맞아 '고호와 고갱: 세기의 라이벌' 레플리카 전시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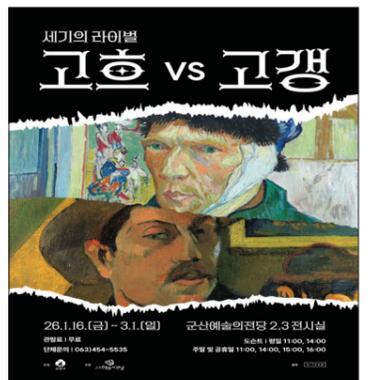
전시는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강렬한 관계로 꼽히는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두 거장,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의 주요 작품을 한 공간에서 비교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한 동료이자 가장 치열하게 충돌했던 라이벌인 고흐와 고갱은 같은 짧지만 강렬했던 공동생활과 갈등을 통해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남긴 화가들로 유명하다.

전시회에서는 두 화가의 대표작을 정교하게 재현해 색채, 붓질, 주제 의식 등 표현 방식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호와 고갱'·'파리에서의 만남'·'고흐의 시선이 닿은 곳' 등 다양한 주제 섹션이 관람객의 시선을 끈다.

여기에, 도슨트 해설이 함께 운영돼 전시 관람의 이해를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2차례 진행되며, 주말에는 오전 11시·오후 2시·오후 3시·오후 4시 4회 확대 운영된다.

특히 관람 후 관객이 예술가의 삶을 주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3가지 체험형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고호가 고갱에게 남긴



편지를 모티프로 감상평을 편지 형식으로 표현해 보는 '고흐에게 보내는 편지' △'고흐의 의자', '고갱의 의자'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을 상징하는 의자를 디자인하는 '나의 의자 만들기' △다양한 색채로 자신만의 발화능을 완성해 보는 '나채로운 발화능 완성하기'가 그것이다. 전시는 1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예술의전당 2전시실·3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정기 대관 14~16일 신청 접수

익산시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정기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관 시설은 미술관 전시실 1층(630㎡)과 2층(480㎡)이다. 대관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2

월 20일까지이며, 기획 전시와 시설 점검 기간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4~16일 익산예술의전당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더욱 자세한

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과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치·종교·집회 또는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미술관의 기능과 맞지 않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시는 대관이 제한된다. 대관 결과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킁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